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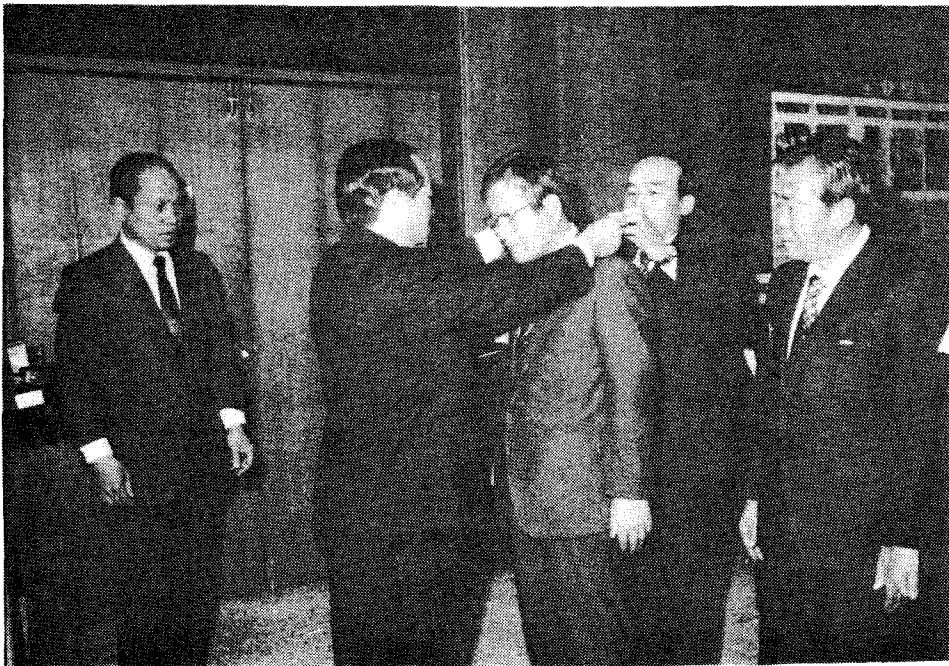
#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特別市 城北區 安岩洞  
 5街 134 - 58  
 電 話：923 - 4372

## 山林事業 有功者에 褒賞

本會 理事 金基運 篤林家에 銅塔產業勳章

— 李用煥 篤林家엔 産業褒章, 金應九 篤林家엔 大統領表彰이 —



鄭山林廳長이 受賞者들에게 있다.

政府는 第 42 回 植木日을 맞이하여 그간 山林事業에 特別히 功이 컸던 篤林家를 包含한 民間人 9 名과 公務員 6 名을 選拔하여 褒賞하였다.

이는 지난 4.3 山林廳에서 鄭採鎭廳長에 依하여 傳授되었는데 本會理事 金基運 模範篤林家(草堂藥品會長)에겐 銅塔産業勳章이, 金鍾穆(江原)氏에겐 鐵塔, 李用煥 模範篤林家(本會 京畿支部長)에겐 産業褒章이 각각 授與되었다.

이밖에 大統領 表彰에 金應九 模範篤林家(慶北本會 理事), 金南株 模範篤林家(全北 本會 代議員)

秋相熙 優秀篤林家(江原), 그리고 國務總理 表彰에는 柳崇烈 模範篤林家(忠南, 本會 會員), 朴勝馥 自營篤林家(本會 會員), 沈文燮(京畿 坡州 山林組合) 氏가 受賞하였다.

그밖에도 公務員 6名에 대한 褒賞者 名單과 受賞者들에 대한 勲格은 別表와 같다.

鄭山林廳長은 褒賞을 傳授하는 式典에서 榮譽로운 受賞者들에게 祝賀의 인사와 더불어 그간의 우리의 山林이 오늘날과 같이 早期에 綠化가 完成된것은 國民의 意志와 精誠이 한데 뭉치고 지금 이자리에 모이신 受賞者같은 여러분들이 先覺者로서의 役割을 다하여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간의 勞苦를 致賀하였다.

이어 鄭廳長은 이제 山林廳이 農林水産部로 移管되었음을 契期로 山林政策에 새로운 轉換點이 될수 있는 轉機로 삼아 山地資源化 計劃을 定立하여 내년부터는 共公 및 民間의 山林投資가 보람이 될수 있도록 投資의 뒷받침이 이루어지는 政策樹立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앞으로 2~3 年間이 活力을 넣을 수 있는 重要 期間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鄭廳長은 여러분들의 經驗과 努力을 앞으로도 더욱 期待한다면서 褒賞의 意義도 이에 있다고 말하고 오늘의 榮光을 잊지말고 계속 精進하여 줄 것을 당부, 受賞者들과 오찬을 함께 하였다.

## 光陵에 첫 山林博物館

### 山林史料 永久保全展示 自然學習教育場化

政府는 지난 4.4 光陵試驗林內에서 第42回 植木日行事와 더불어 山林史料의 永久保全과 自然學習 教育場으로서의 名實相符한 山林圖書館이 될 山林博物館을 開館하였다.

이자리에는 盧信永 國務總理를 비롯, 黃寅性 農林水産部長官 鄭採鎮 山林廳長, 金庸來 京畿道知事 등 政府側人士와 沈鍾燮 學術院會長, 林學者, 韓榮錫 本協會長을 비롯한 各 傘下團體長과 지난 4.3 山林事業: 有功者로 政府褒賞을 받은 篤林家등 많은 人士들이 參席한 가운데 開館式을 가졌다.

이는 林業試驗場이 지난 83년부터 작년까지 總 68 億원의 豫算을 들여 光陵 樹木園內에 建立한 우리나라 最初의 山林博物館으로서 韓國傳統樣式으로 國產木材 및 石材만을 利用한 것이 特徵이다. 또한 이곳에는 各種 山林史料를 保全 展示할 本館을 비롯하여 溫室, 針, 濶葉樹園, 外國樹木園, 灌木園, 觀償樹園, 花木園, 藥用 및 食用 植物園, 高山 植物園, 水生植物園, 暖帶植物園, 盲人植物園, 모델庭園등 綜合的인 施設을 골고루 갖춘 山林과 人間, 韓國의 林業, 韓國의 自然, 林産資源과 技術등을 實演하는 林業教育場과 살아있는 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遂行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1千7百16種의 樹木의 種類와 草類 1千59種등 總 2千7百75種의 植物이 심어져 있다.

一般에게의 公開는 주변 마무리 作業을 마치게 될 오는 4.21부터 有料로 開放될 豫定인데 入場料는 大人 1,000 원, 學生 500 원, 어린이가 300 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褒 祝 賞

榮光의 受賞者들

< 民間人 >

道別	區分	姓名	勳格	備考
全南	模範篤林家	金基運	銅塔産業勳章	本會 理事
江原	一般山主	金鍾穆	鐵塔産業勳章	
京畿	模範篤林家	李用煥	産業褒章	本會 理事
慶北	模範 "	金應九	大統領表彰	"
全北	模範 "	金南株	大統領表彰	本會代議員
江原	優秀 "	秋相熙	大統領表彰	
忠南	模範 "	柳崇烈	國務總理表彰	本會 會員
慶南	自營 "	朴勝馥	國務總理表彰	"
京畿	坡州山林組合	沈文燮	國務總理表彰	



金基運 州



金鍾穆 州



李用煥 州



金應九 州



金南株 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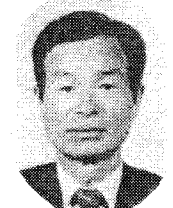
秋相熙 州

< 公務員 >

所屬	職級	姓名	勳格
忠清北道營林課	地方農林技佐	崔怡夏	勸政褒章
江原道養苗課	地方農林技佐	閔庚元	大統領表彰
東部營林署事業課	農林技士	洪鍾鎬	大統領表彰
忠清南道營林課	地方農林技佐	具完書	國務總理表彰
京畿道營林課	地方農林技佐	張相珍	國務總理表彰
南部營林署事業課	農林技士	權純久	國務總理表彰



柳崇烈 州



朴勝馥 州

## 第 8 期 新任員陣 첫 相見禮겸 懇談會

制度 法令 등 整備로 林業人 士氣振作

鄭採鎮 山林廳長과 各 實務局長 全員 參席 激勵



懇談會 席上에서  
한 사람이  
施策建議을  
하고 있다.

本會는 지난 3.23 淸涼里 맘모스호텔에서 第 56 次 理事會를 소집하고 새로 構成된 第 8 期 任員 相見禮겸 懇談會를 가졌다.

이날 모임은 지난 2.24 定期總會에서 決議된 바에 따라 會長團, 監事 및 理事 등 任員陣을 새로이 構成하고 그 첫모임이므로 相互 相見禮를 겸한 懇談會였는데 이자리에는 任員 38 名과 來賓으로서 鄭採鎮 山林廳長, 金樟洙 本會 顧問(韓國林政研究會長)을 비롯하여 山林廳 企劃管理官, 林政, 造林, 營林局長 등 實務局長 全員이 參席하여 盛況을 이루고 懸案 問題點에 대한 幅넓은 討論이 展開되었다.

이자리에서 鄭山林廳長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의 綠化事業에 貢獻한 篤林家들의 勞苦에 대하여 致賀를 하고 이제부터는 山地資源化 計劃을 推進하는 과정에서 制度, 法令 등을 整備 改善하여 篤林家

들의 自律施業을 保障하고 林業人和 山林公務員의 士氣 振作이 되도록 努力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 鄭廳長은 山地開發에 대한 一般人들의 認識이 꼭 開墾이나 하고 山林을 他用途로 轉換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으로 잘못 認識되고 있으나 山地開發의 概念은 반드시 그런것만이 아니고 山林投資도 開發概念에 包含된것임을 強調하면서 山林經營에 先導的 役割을 해줄것을 當付하였다.

이어 進行된 懇談會는 任員들의 熱띤 討論과 質問이 繼續되는 바람에 13:50까지 오찬시간이 지연되었으며 任員들의 質問과 各 實務局長들의 答辯要旨는 다음과 같다.

## 懇談會 開催結果(要約)

○ 日 時 : 1987. 3.23 ( 월 ) 11:00 ~ 14:50

○ 場 所 : 清涼里 담모스호텔 아리랑홀 ( 4 層 )

○ 參席人員 : 44 名

協 會 : 任員 33 名, 顧問 1 名 ( 김장수박사 )

山林廳 : 廳長, 企劃管理官, 林政, 造林, 營林局長

### — 會長人事 ( 要旨 ) —

- 山林廳長과 各 局長全員이 參席하여 주신데 감사
- 오늘 이 모임은 任員陣이 새로 構成된 첫모임이므로 相見禮에 뜻이 있음
- '88부터 第3次 山地資源化計劃 着手
- 山林廳의 農林水産部 移管과 關聯하여 經濟林業과 國民厚生에 寄與하는 革新的인 山林政策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 — 山林廳長 激勵辭 ( 要旨 ) —

- 山林廳幹部 紹介 ( 이지복 기획관리관, 성해기 임정국장, 정태봉 조림국장, 박길홍 영림국장 )
- 現在의 山地綠化 成功은 그간 篤林家들의 勞苦에 기인한 것으로 致賀
- 山林廳이 農林水産部로 의 移管 自體가 곧 政策轉換을 뜻함.
- 올해 山地資源化計劃을 樹立中인 바
  - 財産價値로서 山林所有보다는 開發投資를 誘發하는 政策 뒷받침
  - 制度 法令 金融等 整備
  - 林業人和 山林公務員의 士氣振作이 되도록 努力
- 山地開發은 꼭 林業以外 他用途로 轉換을 뜻하는 것이 아님
- 山林投資도 開發概念에 包含된 것임
- 山林經營을 先導해 주기를 當付

— 建議事項 (要旨) —

- 임동필 (江原) : ○ 開發基金 融資時 林地는 土地만 감정하고 地上物件에 對하여는 除外되고 있다.  
- 林地도 企業鑑定을 하여 地上物件도 鑑定評價하여 擔保能力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차석정 (釜山) : ○ 솔잎혹파리 被害林地에서의 被害木 除去 伐採나 모수림 作業時에 능선부위 수림 대잔존은 의미가 없다.  
- 소생불가능한 것은 完全 除去토록 措置要望  
○ 艱苦으로서의 충분한 적격재가 목욕탕 화목용으로 차당 130,000 ~ 150,000원의 造林費도 안되는 헐값에 去來되고 있다.  
- 木材價格政策에 따른 政府支援이 必要하다.
- 천정하 (서울) : ○ 山林經營學은 있으되 山林經營은 없다.  
○ 營林計劃樹立時 산주의사가 反映 안되고 있다.  
○ 山林行政은 高度로 發達하고 있으나 山主는 그에 따라갈 수가 없다.  
- 現實에 불부합한 規定이 많다.  
• 伐採量을 매일 檢査하여 超過않도록 報告하는 일  
• 분수림 (대부지) 에 境界표주 설치 : 測量費, 표주값, 人件費等を 考慮하면 實行不可  
• 伐採木 페인트표지와 극인타기 중복  
• 林道設計를 꼭 土木職으로 하는 일  
○ 伐採에 對한 國民들의 不定的인 認識을 고쳐야 한다.
- 신덕범 (慶南) : ○ 잣나무를 造林하고 13年이 되었으니 숙음굴취를 하려고 하나 郡에서 굴취許可를 앓고 있다.  
○ 林道施設을 산조에서 할때 15%를 공제하고 있는 바 篤林家에게 보조하여 직영토록 하여 달라
- 최병주 (慶北) : ○ 造林, 育林等 國庫補助事業에 있어 法人篤林家는 除外토록 되어 있으나 영세법인은 包含시켜달라
- 이양우 (忠北) : ○ 國유림 조림대부지중 유상대부지의 境遇 大部요율은 3%에서 1%로 낮아졌으나 土地等級이 相對的으로 높아져 大部로 절대액은 많아졌으며  
○ 그동안 納付한 大部료를 합하면 지가를 상회하니 당초 조건대로 무상양여를 바람.
- 김익노 (江原) : ○ 木材의 流通構造 改善으로 木材價格의 適定線 維持를 하여 달라 - 제값받기運動  
○ 私有林을 國立公園등에 編入하여 私有財産權行事에 規制를 加하여 놓고 公園入場料는 國家가 받고 있다. - 補償策 講究
- 이중관 (서울) : ○ 農漁村 負債탕감조치에 林業은 除外되어 있다.

- 林業은 버린자식 取扱을 당하고 있다.

○ 規制團束行政에서 조장행정으로 轉換하여 林業人의 意慾을 鼓吹시켜 달라.

막상옥(慶北) : ○ 造林用 苗木生産을 自律化 措置

○ 伐採許可도 申告制로 轉換하고 원목유통을 市場經濟原理에 맡겨야 한다.

이용환(京畿) : ○ 中央施策이 일선까지 침투 반영되지 않고 있다.

- 年中 中央單位의 監査가 必要

○ 山林組合員은 山林契長만이 아니고 實際 山主가 參與하는 組合이 되도록 改善이 必要하다.

○ 山林開發基金 利子率 5.5%는 引下되어야 한다.

○ 外材輸入調節로 國內山主를 保護

○ 잣나무 넓적잎벌 被害 早期驅除 - 適期防除로 豫防

## — 山林廳長 答辯要旨 —

### 1. 山林事業의 規制問題

○ 일정시 산감제도 影響으로 團束爲主로 되어 있으며 篤林家의 경우 기히 緩和措置 지시되었으나 일선에서 잘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것 같다.

○ 금년에 山林法改定을 하려는데 篤林家의 山林施業은 完全 自律化措置計劃임

### 2. 篤林家 士氣問題

○ 우리나라 林業이 産業으로 發展않되고 있음은 동감임. 發展은 하고 있으나 他産業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님.

○ 開發基金 利子率 下向調整等 當面問題들을 착실하게 改善 推進할 것임.

### 3. 山林組合 活性化 問題

山主가 도외시된 山林組合은 問題임.

全般的으로 改善 活性化하고자 檢討中에 있음.

### 4. 伐採問題

伐採의 境遇 과벌, 남벌현상은 山林公務員의 정신해이도 問題지만 伐採者에게도 問題가 있다.

伐採者 스스로가 認識을 달리해야 할 것임.

### 5. 山林事業弘報

山林經營投資와 함께 經驗을 바탕으로 한 山林에 關한 대 國民弘報도 篤林家의 任務임.

### 6. 希望的 관점

거시적 안목으로 볼때 우리나라 林業은 希望的임.

外材輸入도 限界가 있으니 비관하지 말고 希望을 가지고 經營에 參與 當付

— 各 實務局長 答辯要旨 —

성해기(林政局長) : ○ 林地에서의 지상권감정에 대하여는 災害에 따른 補償등이 問題이나 關係機關과 協議 檢討할 것임.

- 國內 山主保護를 爲해 輸入材 關稅引下를 繼續 抑制方針
- 農漁村開發基金에 依한 現地 加工工場 建立 檢討中
- 開發基金 利率率 3 %線으로 引下 檢討

정태봉(造林局長) : ○ 山地에서의 林木굴취許可는 育林을 전제로한 次元에서 現在에도 기히 許可되고 있음.

- 各種 國庫補助事業에서 法人을 除外토록 한것은 營生산주 優先支援 原則下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나 法人의 境遇도 財政이 어려운 營生법인에 대하여는 檢討하겠음.
- 種苗生産은 品質管理와 수급의 均衡上 國家管理가 世界 共通的인 것임 - 販賣目的으로 任意生産은 不可

박길홍(營林局長) : ○ 소생불가능한 被害古死木은 모두 伐採할 수 있도록 既 指示되어 있음.

- 표주설치는 本人이 하여야 하나, 國家豫算이 增額되면 支援을 檢討하겠음.
- 조림대부지 무상양여는 繼續 檢討할 것임. 林木伐採를 申告制로 自律적으로 말길수만 있다면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伐採에 따른 물의가야 기되지 않는 社會的인 與件과 風土造成이 先行되어야 한다.
- 임도시공시에 산조에서 15% 공제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일임.
- 산조育成을 爲하여 산조에서도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山主도 20%를 自擔할 境遇 직영이 可能토록 되어 있음.

— 廳長 結言 —

1. 日本의 育樹祭 說明

우리나라도 들에 박힌 行事보다는 篤林家의 現場見學과 比較視察機會도 되고 大學教授등 林業人 모두가 參席하는 多樣한 行事로 할 生覺임.

2. 經營林業으로 가려면 造林者 스스로가 木材用途變化趨勢등 앞을 내다보고 造林, 育林을 하고 行政은 制度 및 財政的 支援을 하도록 해야 함.

3. 金후 山林行政은 篤林家에게 精神的, 制度的으로 惠澤을 주는 方向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소신은 確固함.

앞으로 이와 같은 모임이 많이 있기를 바램.



## 山林行政에 바란다

### 全國土 66% 山地 豫算은 0.3% 뿐



朴泰植 博士

#### 林業人是 말을 해야

農業을 하는 사람들이나 畜産을 하는 분들을 爲해서는 그들의 事情을 弘報해 주는 新聞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情報을 交換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하기가 쉬우나, 林業人들은 林業을 爲한 弘報媒體가 따로 없으므로 林業人은 말할 곳이 없다. 近來 山林廳이 農林水産部로 移管되면서 農水畜産分野를 주로 다루던 新聞이나, 其他 매스미디어에서 林業問題를 조금씩 다루게 된 것은 그나마 꽤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나는 農林水畜産分野의 新聞을 펴 볼때마다 優先 林業人이 말한 것이 없는가 하고 눈을 크게 뜨고 훑어 보지만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 農業人, 畜産人들은 當面하고 있는 問題에 對하여 많은 意見과 政策樹立에 參考가 될 資料를 提示하고 있으나, 林業人이나 山主는 별로 말이 없다. 林業은 第5共和國이 出範한 이래 가장 빛을 못본 그늘진 分野가 되었다. 農業이나 畜産分野도 다른分野에 比하여 成長率로 보아서 相對적으로 뒤진 分野이긴 하지만, 그래도 林業에 比하면 아직 살아있다.

林業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林業은 1981年 政府機構 縮小施策에서 第1番 타자로 바람을 맞았다. 道の 山林局이 없어지고 中央의 山林資源調查研究所가 없어졌다. 山林組合의 下部組織인 山林契의 運營費 구실을 하던 산림계비징수가 禁止되었다. 사망사업이 끝났다고 하여 사망사업소를 大幅 減縮하는 바람에 技能職員들이 갈곳이 없어졌다. 그리하여 林業人들의 士氣가 萎縮되어 活氣가 없어졌다. 그 뿐만 아니라 林業을 爲한 豫算도 國家 全體豫算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점점 낮아져서 現在는 나라豫算의 0.3%밖에 안된다. 木材를 無制限 外國에서 輸入해 오므로 國內産 木材를 팔 수 없게 되어 造林家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빚진 造林費를 갚고 있다. 1960年代 中반부터 나라에서 勸獎하여 많이 심은 밤나무에서는 年間 7萬톤의 밤이 生産되지만 팔곳이 없어서 어떤 밤나무 造林家는 밤을 그냥 따가라고 한 境遇가 한 두번이 아니다. 狀況이 이러하나 木材를 無制限 輸入해서는 안된다던가, 밤 生産者의 利益을 增進하기 爲한 對策을 세워야 한다던가 하는 따위의 主張을 하는 사람이 적다. 林産物도 넓은 뜻에서는 農産物에 包含되는데, 農産物 輸入에 對해서는 農民을 保護하기 爲하여 外國農産物

을 마구 들여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면서, 林産物의 無制限 輸入에 對해서나 林産物의 貯藏, 加工, 流通에 關한 問題解決에 對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 이와같이 林業에 對하여 말이 별로 없는 것은 林業에 對한 關心이 없거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林業이 너무 만신창이가 되어 말할 氣力을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만 있을 수는 없다. 林業人은 말을 해야 한다. 山이 죽으면 맑은 공기가 없어지고 물이 말라 사람이 죽는다. 世上 사람들을 살리기 爲하여 林業人은 말을 하며 일어서야 할 것이다.

### 林業人 해야할 主張

요近來 新聞地上이나 其他 매스미디어에서 論議되고 있는 農林業에 關한 事項 가운데 山地의 效率的利用이란 内容이 많다. 「어떻게 하면 國土의 66%나 되는 넓은 山地를 效率的으로 利用할 것인가」하는 問題에 對해서 저마다의 意見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山地를 開墾하여 農畜業的으로 利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山地를 잘 保存하여 公的利盆을 많이 生産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主張할 것이다. 또 우리 林業人들은 별로 말을 못하고 있거나 안하고 있지만, 山地의 效率的利用은 뭐니뭐니해도 經濟樹種을 심는데 있다고 믿고 있다. 林業人이 이와같이 믿고 있는 것은 林業人이기 때문에 앞뒤의 생각없이 덮어놓고 나무만 심는 것이 좋은 方法이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過去 여러차례 우리가 살 길은 山地를 開墾하는데 있다고 하여 政策的으로 山地開墾을 밀어부쳤던 事實을 알고 있으나 그 結果가 좋지 않았던 經驗을 가지고 있다.

## 山地效率利用 經濟樹 植樹 優先

### “맑은空氣, 깨끗한 물까지 輸入해 올수야”

요즘 農山村의 골짜기에 가보면 過去에는 손바닥 만한 논이라도 용하게도 이것을 갈아서 벼를 심었던 곳에 웬일인지 雜草만 무성하다. 전에 農事짓던 땅이 많이 늘고 있다. 農土가 모자라서 農事의 收支를 맞출 수 없는게 아니다. 原因은 판데 있는 것이다. 過去 農事짓던 땅에서도 農事를 지어서 收支가 맞지 않는데, 새로 山地를 開墾한 생땅에 農事지어서 收支가 맞겠는가 하는 것은 疑問이다. 生産性이 없는 곳에서는 生産을 繼續할 수가 없다. 經濟政策을 다루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比較優位論이 아닌가. 經濟政策樹立 行政家들이 내세우는 比較優位論을 앞세운다면, 山地에서의 生産은 木材를 生産하는 以外에 더 다른 有利한 生産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現在 우리는 國際價格보다는 2.5~3倍 비싼 쌀을 먹고 있고, 쇠고기값은 뉴질랜드나 오스트렐리아에서의 生産價에 比하면 5~10倍

나 비싸다. 그곳에서 4百 50 kg 소한마리에 1百弗程度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값이 내렸다고 야단하는 現在에도 4百 50 kg의 소 한마리 값은 90萬원 程度이므로, 1千弗이 넘는다. 이와같이 比較優位論에 있어서 엄청난 差異가 나는 農畜產物을 生産하기 爲하여 比較優位論에 있어서 外國產과 큰 差異가 없는 木材生産을 하는 山林을 伐採하고 거기에 草地를 造成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輸入木材의 1m當 仁川港口到着價格이 1百 ~ 1百 20弗 程度인데, 國內產 木材의 1m當 서울到着價格이 80 ~ 90弗이다. 外國產木材에 比하여 價格에서 큰 差異가 없는 生産을 하는 우리나라의 木材生産은 有利한 生産活動이란 事實을 알아야 한다. 木材生産은 物質的 生産만 하는 것이 아니고 公共의 利益을 더 많이 生産한다는 事實을 勘案한다면, 木材生産을 하고 있는 山地를 伐採하여 다른 目的으로 使用하여야 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山地가 너무 많으므로 山地를 開墾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1人當 山林面積을 外國과 比較해 보면 많지도 않다. 우리나라 1人當 山林面積은 0.16 ha로서 日本의 0.2 ha보다도 적고, 世界平均値(0.7 ~ 1.0 ha)에 比하면 1/5 ~ 1/6에 지나지 않는다.

또 1人當 山林蓄積도 우리나라는 4 m에 지나지 않으나 日本은 20 m, 世界平均은 70 ~ 80 m 이므로 世界平均의 5%에 지나지 않는다. 너무나 貧約한 1人當 山林面積과 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쌀이 모자라거나, 쇠고기가 모자라면 工產品을 팔아서 사다 먹을 수도 있으나, 山林에서 우리나라 오는 맑은 空氣와 깨끗한 물 그리고 그 아름다운 風景은 輸入해 올 수도 없다.

우리 모두 山地를 毀損시키지 말고 山林을 가꾸어 아름다운 景토를 後孫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 林業이 소생하는 길

林業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해서 체념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곰곰히 生覺하여 살아나가는 길을 摸索하여야 한다. 山에서는 數10年이 걸리는 나무만을 生産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副產物을 生産할 수 있다.

山林에서 一年동안에 木材를 生産하여 거두어 들이는 收入은 山林에서 거두어 들이는 다른 產物全體額에 比하여 6.5%밖에 안되고 그 나머지는 木材以外の 產物價格이다. 버섯(송이)같은 것 하나 만으로도 約 3,000萬弗의 輸出을 올리고 있고 其他 도토리, 잣, 표고, 밤, 산채, 약초등의 副產物을 합치면 많은 收入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山林에는 蜜源植物이 많은데 이 蜜源植物을 利用한 養蜂業에서도 많은 收入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3百億원)

山地를 利用한 다각적 農村林業을 經營하도록 파이롯프로그램을 만들어서, 政府의 濃度깊은 指導事業을 통하여 山主의 所得을 올리도록 하는 事業을 展開하는 것이 우리 林業人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本稿는 農畜水産流通情報 295號分 轉載한 것임)

林業界消息

- 李柱聖 山林廳 利用課長은 馬桓玉 農林技佐와 함께 지난 3.23 ~ 3.27까지 日本 요코하마에서 開催된 國際熱帶木材 機構會議에 韓國代表團으로 參席하고 지난 4月初旬 歸國
- 姜泰泓 山林廳 次長과 成海騏 林政局長 韓甲俊課長은 3.30 ~ 4.4까지 中共 北京에서 開催된 亞細亞 太平洋地域 山林委員會 會議에 參席하고 지난 4.6 歸國
- 趙利明 林木育種 研究所 研究官과 현영일 研究士는 4.1 ~ 4.10까지 日本 林學會參席 및 組織培養 研究動向을 살피러 渡日
- 金演表 林業試驗場長은 지난 4.4 山林博物館을 開館한데 이어 오는 4.21 一般公開에 앞서 4.11 關聯 大學教授, 諮問委員, 展示品 寄贈者, 山林廳 傘下團體 專務理事등 山林關係人士 70餘名을 招請, 現場을 둘러보게 하였다.

— 讀者여러분의 原稿를 환영합니다 —

- 本會 會員은 물론 非會員일지라도 內容과 分量에 制限없이 여러분의 原稿를 환영합니다.
- \* 特히 造林, 育林, 林産等 山林經營에 새로운 技術 紹介
- \* 收益性 좋은 山林所得源 紹介
- \* 나의提言, 建議事項, 體驗手記等 山林經營에 參考될만한 일들
- \* 會員動靜, 林業界消息等

問議電話 923 - 4373

— 協會費는 가급적 上半期에 納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計座番號
- 서울신탁은행 : 19501 - 84009872
  - 농협중앙회 : 001 - 01 - 025926
  - 국민은행 : 093 - 24 - 0025 - 624
  - 우체국 : 011809 - 0014780 - 12

※ 지난 3.23 맘모스호텔에서 開催되었던 本會 任員 相見禮겸 懇談會의 所要經費를 協費하여주시신 本會 理事 金基運(草堂藥品, 百濟藥品會長) 氏에게 感謝를 드립니다.